

종교기반 시민사회단체의 복지활동과 시민사회의 발전

: 종교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전 명 수**

- I. 문제제기
- II. 종교사회복지와 시민사회의 연계: 연구사적 검토
- III. 종교기반 복지시민단체의 특성과 종교 사회적 자본의 역할
- IV. 종교기반 복지시민단체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본 '종교사회복지'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발전
- V. 결론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종교기반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복지활동의 특성을 종교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교사회복지[이하 종교복지]의 의미와 시민사회에서의 기여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사회라는 술어는 비록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적어도 그것이 시장의 이기주의에 의해서도, 국가의 강압적인 잠재력에 의해서도 조직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5S1A3A2046920).

**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조교수(종교사회학 전공)

2 종교와 문화

되지 않은 그러한 형태의 공동체와 결사체적 삶을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결사체들은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어서 시민사회는 자발적 결사체로 구성되고, 순수하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결사체의 형성 동인은 자기중심적이기보다는 좀 더 시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¹⁾ 그렇다면 종교는 시민사회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박영신은 종교가 그동안 국가와 시장과 구분되는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종교와 사회라는 두 영역은 ‘의미’의 관계가 있고, 종교는 바로 삶의 ‘의미’체계를 제공해주는 것이어서, 시민사회의 의미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²⁾ 유승무 역시 종교를 시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부분으로 규정했다.³⁾

종교는 대부분 이념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한 복지적 시선을 갖고 있거니와, 종교복지는 바로 종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이념이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행하는 복지활동이다.⁴⁾ 처음에는 종교복지가 경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한 자선, 구제와 같은 돌봄 위주의 활동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이러한 활동이 그들의 어려운 현실을 오히려 영속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척결하여 궁극적으로 ‘정의’와 ‘평등’이 구현되는 사회구조로의 변화를 꾀하는 활동이라는 개념상의 확대가 형

1) Corwin Smidt, "Introduction," Corwin Smidt (ed.), *Religion as Social Capital: Producing the Common Good*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03), 3.

2) 박영신, 「종교, 삶의 문화, 그리고 시민사회」, 박영신·이승훈 공저,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 사사로운 개인에서 공공의 시민으로』(서울: 북코리아, 2010), 85-86.

3) 유승무, 「시민사회의 등장과 새로운 종교사회복지모델의 모색」,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서울: 학지사, 2003), 42.

4) 전명수, 「종교사회복지의 이념과 실천 방식에 대한 재성찰: 종교사회복지의 이론화작업의 일환으로」, 『담론201』18-2(2015), 65-92.

성되고 있다. 복지에 관한 이러한 양 갈래 주장은 모두 각 종교 교리에 대한 통전적 이해에 기반한 것이어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적절하나 사회봉사와 사회참여라는 양면을 종교복지가 실제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포괄할 수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사회참여에 좀 더 적극적일 경우 사회봉사가 소홀히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종교복지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복지를 실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교회, 사찰과 같은 종교기관, 복지관 등 다양한 종교기반 복지시설과 복지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종교기반 복지시민사회단체[이하 종교복지시민단체]는 복지시민단체로서의 성격과 사랑, 자비, 긍휼, 구제, 돌봄에 기반한 종교단체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춘 것이라는 점에서 종교복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된다. 이 단체들은 자발적 결사체로서 목적달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종교·비종교 기관이나 단체들과 연대해서 활동하는데, 이 때 종교 측이 갖는 힘은 주로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만약 종교복지시민단체가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 단체들이 보유한 내적 또는 외적 사회적 자본에 많이 의존할 것으로, 여기에는 신뢰에 기반한 종교 신자들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큰 자원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이를 ‘종교 사회적 자본’으로 부른다. 최근 종교 사회적 자본이 시민사회를 활성화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종교복지시민단체에 대한 고찰은 종교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자본은 참여자나 비참여자 모두에게 이로운 공익을 산출하는 자발적 결사체에 연결된다고 한 콜만(James S. Coleman)⁵⁾과 무엇보다 결사체적 삶은 시민개입을 키우는 사회적 자본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본 퍼트남(Robert D. Putnam)⁶⁾의 견해에 의거해

5) James S. Coleman,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313.

서, 종교복지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에서의 종교 사회적 자본의 역할, 특성과 기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자연스럽게 종교복지 개념의 재고찰로 이어질 것이다. 종교복지시민단체 자료는 『2012 한국민간단체총람』(시민운동정보센터, 2012)⁷⁾의 복지, 빈민 분야에 귀속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다.

II. 종교사회복지와 시민사회의 연계: 연구사적 검토

종교복지의 개념은 본래 종교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어려운 이들에 대한 물질적 구제나 돌봄의 관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을 단순히 자선이나 봉사라는 틀을 넘어 ‘일자리 찾기’라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 영역을 좀 더 확대하려는 관점도 나타났다. 가난의 문제는 자선 혹은 개인적인 구호활동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지속시키는 나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발전보다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돌봄에 초점을 둔 복지는 일반 사회복지의 개념과 차이가 없어 ‘종교’복지로서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학자들이 물질적인 구제나 돌봄을 전인적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6) Robert D. Putnam, Robert Leonardi, Raffaella Y.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167, 177; M. W. Foley & B. Edwards, “Beyond Tocqueville: Civil Society and Social Capital in Comparative Perspectiv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1998), 12.

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비정치 비종교 민간단체로, 이 책의 민간단체는 NGO 또는 시민단체와 유사한, 또는 포괄하는 개념을 지닌다.

8) 도날드 밀러·테쓰나오 야마모리, 『왜 섬기는 교회에 세계가 열광하는가?: 기독교적 사회참여의 새로운 모델, 성령운동』, 김성건·정종현 옮김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150-152.

‘종교’복지 고유의 특성을 구축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복지활동에서 특히 물질보다 영성을 중시하는 영성복지는 “영성과 사회복지학회”의 창립과 저널의 창간을 통해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 학회는 “종교복지의 근간이 되는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론연구와 실천기법을 개발하는 학문”⁹⁾으로 소개하고 있거니와, 영성복지를 종교복지의 하위분류로 귀속시킴으로써 개인의 영성 개발이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의 치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관점을 보여준다.

종교복지를 물질적 시혜를 중심으로 하든, 영혼의 구제 내지는 영성복지를 강조하든, 이것은 모두 사회봉사라는 틀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가 시민사회활동이 적극적으로 수행되는 시대에 발맞추어 사회복지가 시민사회와 연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¹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종교복지학계에서도 동일한 주장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종교복지가 사회봉사의 틀을 넘어 사회참여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승무는 시민사회가 급속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환경은 종교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종교시민사회복지’로 명명하고, 종교복지는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운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¹¹⁾ 이태수는 가톨릭 사회복지가 지향점을 한 인간의 구원에서부터 사회정의의 실현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톨릭교회 내의 NGO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인권, 여성, 통일, 환경, 노동, 빈곤, 평화운동과 연대하고 이로부터 복지에 대한 연대세력을 교회 내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¹²⁾

불교사회복지는 불교이념과 사회복지 전문성과의 관계, 복지 실무자

9) 영성과 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http://www.kassw.net/>)

10) 김기식,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69-179.

11) 유승무, 앞의 글, 42, 54.

12) 이태수, 「시민사회 내에서의 가톨릭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서울: 학지사, 2003), 186.

들의 불교 정체성의 확보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특성을 보여주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불교계 복지사업이 NGO 단체들과 연대해서 공동의 문제에 대처하고 시민사회를 지향하도록 방향 정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경임은 불교사회복지를 포함해서 종교계 내에서는 공동체운동, 의식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방향이나 정책을 제시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을 고려해서 제도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원불교의 경우 신자들의 사회참여보다는 사회봉사를 중시하는 데에서 보이듯이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의 연계 방향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교구와 교도의 자원봉사 교육을 중시하고, 특히 지역 내 타 종교기관과도 연락하여 유대체계의 형성과 연합활동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타주의’라는 원불교 이념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에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¹⁴⁾

이러한 논의는 취약계층의 문제가 결국 사회구조적 접근 없이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종교복지가 이제 개인의 돌봄에서 더 나아가 정의구현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모아진다. 다시 말해서 종교시민사회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해 종교적 공헌을 베푸는 것을 넘어 그들의 권익 제고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주장에는 이론적 합리성이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종교복지와 종교시민사회복지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이다. 종교복지는 구제활동을, 종교시민사회복지는 생명, 통일, 환경, 외국인 문제 등 시민사회의 공공의 문제를 활동 목표로 삼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종교복지와 종교시민사회복지는 이원화되어 함께 하기가 어렵다. 위에서 거론된 시민사회의 여러 운동 영역에서 복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주목되거니와, 이것은 복지의 경우 사회운동화가 그렇

13) 권경임, 「시민사회에 있어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서울: 학지사, 2003), 132.

14) 심대섭, 「시민사회에 있어서 원불교 사회복지의 역할: 한국의 시민사회와 원불교의 사회봉사」,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서울: 학지사, 2003), 144, 161.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는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사회와의 연계라는 종교복지 활동은 일반 복지시민단체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예로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시켰으며,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종교복지는 이 연대에 참여해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종교’의 역할은 보이지 않아서 종교 없는 복지활동이 될 것이다.

이로 본다면 종교복지와 시민사회활동이 이원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드노우(R. Wuthnow)는 공휼(compassion)과 정의는 언제나 나란히 가야하며,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공휼과 전체 사회를 위한 좀 더 광범위한 정의감 사이에는 ‘건강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거니와,¹⁵⁾ 종교복지시민단체의 복지활동 역시 공휼과 정의 간의 건강한 균형이 요구된다. 고병철이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의 구현 대신 행복한 삶의 추구로 정의한 것은 우드노우의 시각과 매우 근접해 보인다. 그는 사회복지의 개념이 1980-90년대에 ‘단순 자선 차원’에서 ‘사회정의’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전환 정도에 따라 고려의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면서도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부정의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노력”으로 보았다.¹⁶⁾ 여기에 기술된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부정의’라는 구절에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평등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어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구절이 보여주는 투쟁적 함축 대신 종교복지 고유의 공휼에 정의를 포괄적으로 담으려는 인식이 보인다.

이러한 인식에는 취약계층의 당면 문제가 궁극적으로 사회제도 등의 모순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개선, 개정, 변혁 등 복지 불평등이나 불의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15) Robert Wuthnow, *Acts of Compassion: Caring for Others and Helping Ourselv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250-253.

16) 고병철,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종교문화비평』19(2011), 268.

한편 시급한 돌봄, 구제와 같은 종교복지의 본질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관점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의 돌봄에 헌신하는 종교인들 중에는 정의의 개념을 돌봄의 차원에서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¹⁷⁾ 종교복지의 경우 정치, 경제, 환경, 교육 분야와 달리 이를 ‘사회운동’화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복지는 사회 취약계층이 겪는 빈곤과 불평등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기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돌봄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노길명은 종교복지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¹⁸⁾ 효율성의 강화란 일단 사회복지의 공holes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종교복지의 한 축으로 본 주장과는 다르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사에서 제시된 종교복지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종교복지시민단체들이 수행하는 실천적 관점에 적용해봄으로써 그 특성을 파악하고 종교복지의 의미를 재검토해 볼 것이다.

Ⅲ. 종교기반 복지시민단체의 특성과 종교 사회적 자본의 역할

1. 종교복지시민단체의 특성: 비종교 복지시민단체와의 비교

종교복지시민단체들은 공적 이해 실현을 위한 비정부 비영리 조직이어서 ‘종교’의 사회봉사와 ‘시민’의 사회참여 활동을 모두 포괄하기는 하지만 이들 중에는 사회봉사 위주의 단체는 있으나 사회참여에만 집중

17) Robert N. Bellah et al., *The Good Society* (New York: Alfred A. Knopf, 1991), 194.

18) 노길명, 「종교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종교와 사회』1(2010), 207.

하는 단체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복지제도 비판이나 취약계층의 권익 제고 등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있으나 전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의 성격을 띤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몇 종교기반 단체¹⁹⁾의 활동을 살펴본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복지시민단체로는 대표적으로 ‘맑고향기롭게’[1954-1955], ‘연꽃마을’[2496-2497]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모임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이 중심이다. 뜻을 함께 하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아마도 대부분 불교신도들일 것이다. ‘연꽃마을’은 효정신과 경로사상의 증진을 위해 효의 사회화운동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양로원,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노인작품 전시회, 효사랑 축제, 노인문제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효의 중요성과 분위기를 사회에 전달하는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대체로 불교복지시민단체들은 포교와 사회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자원봉사회가 조직되어 있어 회원들의 봉사활동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맑고향기롭게’는 2012년도 현재 기준 회원이 10,000명이고, ‘연꽃마을’의 연혁을 보면 설립(1989) 후 2년 만에 후원회원 1만 명 돌파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들 전부가 불교신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불교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두 단체 모두 지역별 모임이나 산하 시설과 기관들이 있어 자원봉사자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가톨릭복지시민단체들 중에는 봉사뿐만 아니라 대사회적 참여활동에도 적극성을 보이는 것들이 많다. ‘가출청소년쉼터모퉁이쉼터’[1894], ‘갈거리사랑촌’[1894], ‘독립문평화의집’[1947], ‘성모의마을’[1994], ‘한국CLC’[2072-2073], ‘명회원’[2256], ‘나루터공동체’[2540] 등이 있는데 그중 ‘독립문평화의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의 지원으로 설립된 ‘평화의집’은 독립문을 포함해서 강북, 성북, 송파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이 단체들은 빈

19) 종교복지시민단체 중 『2012 한국민간단체총람』(시민운동정보센터, 2012)에 근거한 활동 내역은 괄호 안에 그 페이지만을 기록하고 별도의 각주를 달지 않는다.

민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공동체운동의 활성화와 지역 내 저소득 실직자들의 실업극복운동을 주요 목표로 한다. ‘운동’을 내세웠지만 주요사업은 가사도우미 알선, 지역공부방 연계활동, 복지상담, 출장뷔페 등 봉사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가톨릭에는 장애인 대상 인권운동[나루터공동체], 풀뿌리공동체운동·빈부격차해소운동[한국CLC], 주민공동체운동·실업극복운동[독립문평화의집] 등의 사회운동을 지향하는 단체가 적지 않으나 이와 함께 의료·교육·생활서비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역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이들 단체 중 일반 시민단체들처럼 직접 행동에 나서거나 그들과 연대를 하는 경우는 ‘평화의집’ 외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개신교복지시민단체는 ‘동방사회복지회’[1948], ‘복지와사람들’[1968-1969], ‘월드비전’[2020-2022], ‘하트하트재단’[2054], ‘YMCA그린닥터스’[2188] 등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중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세계 100여 나라에서 긴급구호, 개발사업 그리고 옹호사업을 진행하는 국제 구호개발기구로, 우리나라에는 강원, 경기북부 등의 지부와 그밖에 복지관과 가정개발센터가 있다. ‘월드비전강원지부’[2022]는 강원아동청소년권리센터를 열고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개선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아동청소년 집단과 지역주민 및 전문가 집단이 모니터링 및 포괄적 감시활동을 하고 직원 및 또래 상담가들이 상담과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한다. 개신교복지시민단체들 중에는 ‘월드비전’, ‘하트하트재단’, ‘YMCA그린닥터스’처럼 국제 구호기구로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고, 따라서 이들 대부분이 사회봉사의 맥락에 위치하지만 ‘월드비전강원지부’처럼 아동의 권리보호나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는 단체도 있다.

이들 단체를 비종교 일반복지시민단체의 활동과 비교해보면 일단 종교복지시민단체들은 그 목표가 사회봉사든 사회참여든 선교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어, 종교복지가 영성복지를 포함하고 그 활동이 전인적 사역에 토대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가장 큰 차이는 위

에서 기술한 대로 종교기반 단체들은 어떤 유형의 단체를 막론하고 구호·구제·봉사 활동에 더 집중하는 데에 비해서 비종교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운동의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복지시민단체가 적어도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그들의 구호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어떤 유형의 복지단체든 종교시민단체는 일단 나눔과 돌봄의 서비스로 출발하고 있다. 반면 비종교 일반시민단체의 경우 이러한 구호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예로 ‘민중복지연대’[1960]는 사회복지제도 비판과 정책방향의 제시, 사회복지노동자의 지원 등의 활동을 위해 공공연맹 사회복지노동조합 모임이나 민중복지 쟁취와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연대한마당에 참여하고, 민중복지포럼,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한다는 활동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그 안에 특정 계층이나 그룹 또는 사람들의 돌봄과 그들에 대한 봉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종교복지시민단체의 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활과 사회복귀에 초점을 두는 것은 취약계층 중 특히 실직노숙자들을 위한 종교시민단체들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IMF로 인해 노숙인들이 많아지면서 종교기반 홈리스관련 단체들이 많이 설립되었고 이들을 연합하는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가 구성(1998)되어 2010년 이전까지는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것은 홈리스 문제에 종교 측의 관심과 배려가 크다는 점을 말해주거니와 여기에는 ‘대한성공회살림터’, 가톨릭 ‘성남 하사함의 집’, 불교 자활시설인 ‘영등포 보현의 집’, 개신교 ‘가나안쉼터’와 ‘남대문쪽방상담소’, ‘구세군 브릿지센터’ 등 각 종교와 교파들이 망라되었다. 이들은 모두 구제 활동과 함께 특히 취약계층의 자활이나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지만 제도개혁이나 그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령,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 같지는 않다.

이들 노숙자 돌봄 종교시민단체를 비종교시민단체와 비교해보자. ‘홈리스행동’[3267-3268]은 홈리스 문제를 게으름, 무능 등 개인의 책임

으로 떠넘기는 인식에 반대하며, 노숙은 물론 극한의 주거빈곤 상태에 처한 홈리스 대중들의 조직된 힘을 통해 홈리스 상태를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단체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약칭 노실사)을 창립하고 ‘월드컵 대책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을 조직한 것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것 등은 ‘홈리스 대중들’의 조직을 통해 그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하나의 힘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종교기반 실직노숙자시민단체에서는 ‘한울타리 사람들’²⁰⁾처럼 노숙인 당사자들의 조직된 힘에 기반한 사회참여 활동이 발견되지 않는다.

일반복지시민단체와의 또 다른 차이는 종교복지시민단체는 무엇보다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단체명에서 보이는 ‘공동체’ ‘쉼터’ ‘집’ ‘센터’ ‘울타리’ ‘마을’은 공허와 관심, 나눔과 돌봄이 있는 종교공동체로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휴식처이고 피난처이며 힐링공간이다. 특히 노숙자단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명칭들은 집 없는 노숙인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함축하면서 그 단체를 하나의 종교적인 가족공동체로 보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반면 비종교 일반복지시민단체는 모임이나 연맹, 연대, 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운동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종교복지시민단체는 후원하는 협력단체가 많고, 자원봉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여기에는 종교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단체도 포함된다. 반면 일반복지시민단체의 경우 주로 시민단체 간의 연대에 의존한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에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행동하는 복지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대’의 이름이,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에는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복지단체 이름이 보인다. 종교시민단체의 경우 ‘독립문평화의집’이 2005년 ‘8·31종합

20) 박정수, 「실직노숙인 재활 그룹홈 ‘한울타리 사람들’과 홈리스 주거지원」, 『도시와 빈곤』66(2004), 116-124.

부동산대책의 성공적 입법화 촉구를 위한 45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이 종교복지시민단체는 서비스 지원에 더 초점을 두기는 하지만 사회참여 활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활동이 '월드비전강원지부'의 아동권리보호 운동, '독립문평화의집'의 부동산대책 입법화 운동처럼 해당 단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으로 수행하는 것이어서 비종교 복지시민단체들이 설립목표가 서로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과 차이가 있다. 예로 '우리복지시민연합'[2014-2015]은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대구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대구복지공약을 발표하고 반빈곤네트워크(준)를 발족하는 등 복지 관련 활동과 함께 대구총선연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 시민모임'[1967]은 지역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견제 및 감시활동, 사회 복지 관련 다양한 시민모임의 조직·육성 및 지원활동,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위에서 기술한 대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연대는 넓은 의미에서 복지 운동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단체의 설립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긴급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종교복지시민단체의 특성에서 드러난 종교 사회적 자본의 역할

종교복지시민단체는 비종교 일반시민단체와는 달리 참여보다는 봉사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참여의 경우도 자신들의 목표를 수행하고 그 해결을 추구하기 위해서이지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비종교 일반시민단체가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로 세를 과시하는 것과 달리 종교복지시민단체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자원봉사자, 물질적인 후원과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사회적 자본이 자원의 중심이 된다. 그렇다면 종교복지시민단체가 어떻게 그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지는

종교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과학 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하지 않고, 단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획득된 자본”²¹⁾이라는 간단한 정의로 출발한다. 사회적 자본이 크게 사회적 네트워크, 그것들로부터 생기는 상호 관계와 상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가치로서 현대세계를 논의하고 이해하는 영향력 있는 개념이 되면서 특히 신뢰, 네트워크, 규범은 사회적 자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본틀이 되었다. 그중 너무 일반화되고, 자주 수사적으로 사용되는 ‘규범’을 제외하고 신뢰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²²⁾ 먼저 신뢰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위상이 주어진 것은 아마도 후쿠야마(F. Fukuyama)의 저작에서로, 그는 한 국가의 복리와 그 경쟁능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고유한 신뢰수준, 즉 사회적 자본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그는 신뢰를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편에서 공통적으로 공유된 규범에 기반한 “정규적이고 정직하고 협력적인 행동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기대”로 정의한다.²³⁾ 다음 네트워크는 개인들 간의 정보소통의 통로로서의 관계망을 말한다. 쉐러(Tom Schuller)(외)에 의하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중심 술어와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회적 자본의 관심과 중복되는 영역으로, 행위자와 행위가 의존적이기보다 상호의존적이고, 행위자 간의 상관적 유대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의 이동이나 흐름을 위한 통로가 된다.²⁴⁾

사회적 자본이 시민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고찰하는 매우 중요한

21) Nan Li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9.

22) Tom Schuller et al., “Social Capital: A Review and Critique,” Stephen Baron et al., *Social Capital: Critical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4.

23) F. Fukuyama,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7, 26.

24) Tom Schuller et al., *op. cit.*, 19.

이론적 기반이 된 것은 종교가 사회적 자본의 생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그것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인인 개인들 사이의 공식 또는 비공식 개별 관계나 사회적 결합관계에 기반한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교회나 성당 또는 사찰과 같은 종교기관이기 때문이다. 퍼트남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공동체는 미국에서 거의 틀림없이 단일 부분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보고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란 하나의 건물도, 하나의 제도도 아니고, 개인들 간의 관계라고 한 맥멀런(C. McMullen) 목사의 말을 인용했다.²⁵⁾ 밀러(D. Miller)는 종교는 미국사회의 어떤 다른 제도들보다 미국의 사회적 자본에 기여할 좀 더 많은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고,²⁶⁾ 슈미트(Corwin Smidt)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종교』를 편찬하면서 그 책의 필자들이 모두 종교가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민주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기술했다.²⁷⁾

그렇다면 종교 사회적 자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가. 퍼트남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척도 중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의미 있게 남는 것은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 정도이다.²⁸⁾ 시민사회 내의 자발적 결사체나 시민행동에의 적극적 참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뢰를 표현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척도로서의 의미가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나 시장의 압력에서 자유롭고, 개인의 자기 이익이 아닌 좀 더 시민적인 공익의 추구에 기반한 자발적 결사체로 구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 사회적 자본 역시 종교시민결사체의 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기는 하나 여기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자발적 결사체로서 시민단체는 그 이념과 목표에

25)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2000), 66.

26) Corwin Smidt, *op. cit.*, 2에서 재인용.

27) *Ibid.*, 13.

28) 김상준,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2004), p.84.

동의하는 이들로 결성되었을 것이지만 종교시민단체, 특히 종교복지시민단체의 경우 그 구성원들은 ‘행동하는 이들’이 아닌, 단체를 ‘섬기는 이들’로 내부에서 실무적인 차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종교복지시민단체의 사회적 자본은 외부로부터 온 단체의 봉사자나 후원자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교복지시민단체 중 ‘월드비전강원지부’는 423 교회로 구성된 19개 지회와 개인후원자의 지원을 받는다. 19개 지회 대표는 모두 교회 담임목사로²⁹⁾ 이 지회들은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합은 목사들 간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각 목사는 모두 그들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신자들을 대표하는 것이어서 이 연합회는 19 교회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로 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현영 목사가 시무하는 원주제일감리교회는 공감, 나눔, 섬김의 사회봉사 사역 중 섬김의 중요 내용이 월드비전과의 협력임을 내세우고 있어 이것이 교회 전체가 수행하는 사역의 하나임을 보여준다.³⁰⁾ ‘월드비전강원지부’의 ‘사랑의점심나누기 캠페인’ 모금액 중 3분의 1이 교회에서 나올 정도로 지역교회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³¹⁾ 개신교 ‘가나안 쉼터’는 영성훈련을 위한 새벽예배 및 365저녁 부흥회에서 매해 100여명의 목사들이 무료로 부흥집회를 연다.³²⁾ 개신교 ‘남대문쪽방상담소’는 높은뜻푸른교회가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의 쪽방도배 팀이 도배봉사 및 청소와 집 정리를 도와준다.³³⁾

말할 것도 없이 각 단체의 참여자들 간에는 종교적 믿음에 기반한 신뢰와 함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이 네트워크는 봉사자와 후원활동이 상호의존적임을 보여주면서 봉사자들 간에는 후원의 호

29) 월드비전강원지부 홈페이지(<http://worldvisiongw.or.kr/home/main/index.php>)

30) 원주제일감리교회 홈페이지(<http://www.wjmc.or.kr/>)

31) 국민일보. 2012. 7. 22. “NGO와 연대해 역량 ‘UP’ 강원도 교회의 힘… 월드비전 강원지회연합회, 교회연합 새 모델로 주목”

32) 가나안쉼터 홈페이지(<http://www.canaanhomeless.or.kr/>)

33) 높은뜻푸른교회 홈페이지(<http://www.igodswill.com/>)

름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거론한 종교시민단체들, 예컨대 ‘맑고향기롭게’, ‘월드비전’, ‘평화의집’ 등은 본부와 지부, 지역별 지부 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 종교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 물적 내지는 영적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의 활동이 전인적 사역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나안 쉼터’의 100여명의 목사들, ‘월드비전강원지부 19지회’의 목사들이나 남대문쪽방을 방문하는 도배봉사자들은 아마도 개인으로서 그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포트(A. Portes)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연결망이나 다른 사회조직체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혜택을 확보하는 행위자의 능력을 나타낸다”³⁴⁾라고 했거니와 성직자나 신자들이 종교복지시민단체를 위한 봉사 모임의 일원이 됨으로써 개인으로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능력,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이 된 것이다.

그러나 동일 종교 사회적 자본만으로는 종교복지의 성취 기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월드비전강원지부’, ‘가나안쉼터’의 활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월드비전이 추구하던 운동인 ‘사랑의 빵’ 저금통이 이러한 전국적인 지부 지회와 소속 교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행된 것은 사실이나 만약 종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일반 사회단체의 참여가 없었다면 목적 달성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은 종교복지시민단체의 활동에는 퍼트남이 구분한 결속형(bonding) 사회적 자본과 연계형(bridging) 사회적 자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시에 종교복지시민단체의 네트워크가 종교기관이나 단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기관과도 긴밀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월드비전강원지부’는 도청, 도민일보, 교육청, MBC, 앰투어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과 언론사,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이나 캠페인을 수행했고,³⁵⁾ ‘가나안쉼터’는 보건소, 의료원들과 관계를 맺고 무료진료 등의 혜택을 받았다.

34) A. Portes,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998), 6.

35) 월드비전강원지부 홈페이지(<http://worldvisiongw.or.kr/home/main/index.php>) 참조.

반면 ‘독립문평화의집’은 전술한 종교복지시민단체와는 여러가지 점에서 다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의 무악동선교본당이 운영하는 지역센터인 이 단체는 무엇보다 외부 사회적 자본의 도움을 받았던 위의 단체들과 달리 자체 내부에서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고 키웠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 ‘평화의집’은 풀뿌리주민운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의 주민공동체운동에 힘을 기울인 것이다. 60명의 대원들이 활동 중인 무지개스카우트, 자활 프로그램의 일환인 ‘한솔밥공동체’, 노인회, 부녀회 등의 소규모 공동체, 간병인이나 가정보호사 파견 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절거당할 위기에 처한 주민들과 세입자대책위원회를 꾸렸고, 200세대에 달하는 세입자들은 가이주 단지를 얻어 생활하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재개발투쟁에서 이 단체는 빈민운동단체와 연합했는데, 이 연대는 시민단체가 영역을 불문하고 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로 ‘독립문평화의집’이 2005년 ‘8·31종합부동산대책의 성공적 입법화 추구를 위한 45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것이 그들의 활동목표에 부합하는 연대였기 때문이다. 그밖에 이 회견문에는 대한성공회살림터,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등의 이름도 보이거니와, 이들 단체의 목표 모두 국가의 부동산대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종교복지시민단체는 보편적인 공동선으로서의 정의구현보다는 자신들의 활동 목표와 직접 관련된 ‘정의’에 주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IV. 종교기반 복지시민단체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본 ‘종교사회복지’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발전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한 대로 종교복지시민단체의 기여는 자체복지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비종교 시민들과 기관 또는 단체들까지 개별적으

로 또는 조직적으로 사회참여와 봉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 있다. 시민 결사체들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좀 더 필요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관해 가르치면서 개인들이 사회화하는 것을 돕는 것이어서 결사체의 활동이 곧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퍼트남과 그의 지지자들은 결사체적 삶이 건강한 민주주의 체계가 필요로 하는 일종의 사회적 신뢰와 시민참여에서 궁극적으로 나오는 협력,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의 관습을 산출한다고 확신했다.³⁶⁾

구체적으로 ‘월드비전강원지부’의 사랑의 도시락, 사랑의 점심나누기 등과 같은 복지활동은 그 지역 교회와 소속 신자들을 굶주림이란 처절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종교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비종교인들 역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사랑의 점심나누기운동에서 후원자의 약 3분의 1이 교회의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종교시민단체의 복지활동이 3분의 2의 교회 밖 종교 또는 비종교적인 참여자들을 이끌어내서 함께 사회적 자본을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종교복지란 종교인 개인보다 종교공동체와 그들의 활동을 신뢰하고 협력하는 외부인이나 단체들의 사회봉사나 사회참여로 이루어지는, 주로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복지활동이다.

그간 사회복지의 개념이 정의구현 운동에의 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이미 연구사의 재검토에서 보여준 바 있으나 실제로 종교복지시민단체의 활동을 보면 종교복지의 경우 정의의 의미가 어느 정도 과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복지와 달리 종교복지는 종교 사회적 자본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사회참여운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행되기는 어렵다. 주로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주거권을 위한 활동을 했던 ‘독립문평화의집’의 경우 그들의 사회참여란 사회정의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목표를 두었다. 그들을 지원한 가톨릭 무악동선교본당은 현재 철

36) Robert D. Putnam, Robert Leonardi, Raffaella Y. Nanetti, *op. cit.*, 177; M. W. Foley & B. Edwards, *op. cit.*, 12.

거와 재개발이 마무리되면서 남은 재개발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에 맡기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선교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³⁷⁾ 이것은 철거와 재개발 투쟁이 본래 그들의 절실한 생존문제로서 전개된 것이지, 사회보편적인 부정의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의구현 운동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복지의 개념을 정의구현이라는 거대담론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부적당해 보인다. 고병철이 종교계의 사회복지 논의에서 사회복지자를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했으나, 본고에서 다룬 종교복지의 대상자들은 복지의 보살핌을 받더라도 인간다운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종교복지시민단체의 활동은 아동, 노인, 또는 실직자·노숙자·철거민 등 모두 가장 기초적인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통해 최소한도의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중심이다. 이것이 종교복지인 것이다. 시민사회에서의 종교복지시민단체의 기여 역시 이러한 점에서 평가될 수 있거니와, 복지 대상자들은 대부분 삶의 최하위층에 몰린 이들의 심리적, 정신적, 영적 치유는 가장 기본적인 돌봄 방식이 될 것이다. 그간 종교복지는 선교나 포교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학계의 비판적 시각이 많았으나³⁸⁾ 취약계층의 돌봄은 무엇보다 지친 심신과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가 포함되는 통전적 사역이라는 적극적인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절박한 생존문제를 가진 이들에 대한 이러한 치유에는 공동체적 접근 역시 유의할만하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바로 자율적인 개인들을 공동체 관계 속으로 함께 묶는 그 능력에 있는 것으로, 사

37) 평화신문. 2015. 4. 12.

3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3항에는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란 구절이 있다. 종교복지시민단체는 복지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종교적 접근을 수행하는 것이고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다.

회적 의식이 거의 없고 서로에 대한 책무감이 약한 사리적인 개인들을 공유된 관심과 공동선의 의미를 표현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변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³⁹⁾ 로버트 벨라(Robert N. Bellah)는 오늘날 세계인들은 좋은 경제와 좋은 정부를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경제도 정부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효과적인 제도들을 가진 활기찬 공동체들의 창조만이 모든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할 부와 권력의 경향을 제한하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충만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할 수 있다고 했다.⁴⁰⁾ 이러한 공동체의 힘에 대한 평가는 말할 것도 없이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평가에는 특히 종교공동체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심화된 인식을 갖고 있는 종교사회학자로서 벨라의 확신이 들어있어 보인다.

사회복지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공동체의 기여는 적어도 종교공동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에찌오니(A. Etzioni)에 의하면 공동체는 두 가지 요인들의 조합으로, 하나는 일군의 개인들 간의 정서를 담은 관련성, 단순히 일대일 또는 사슬 같은 개인적인 관련성보다는 서로를 교차하고 강화하는 관련성의 망이고, 또 하나는 일련의 공유하는 가치, 규범과 의미, 그리고 공유하는 역사와 정체성, 요약하면 특정 문화에 대한 헌신의 척도로 정의했다.⁴¹⁾ 여기서 개인들 그룹 간의 정서를 종교 신자들 간의 ‘형제애’로, 공유하는 가치, 규범, 의미 등을 ‘신앙’으로 대체하면 그것은 바로 종교공동체의 정의가 된다. 종교공동체는 구성원들의 동일 신앙에 기반한 신뢰감, 종교기관들과의 긴밀한 연락망들을 갖고 있거니와, 각 종교기관의 집회이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규모 공동체이든 그 모임들이 각각 상호 신뢰감과 연락망에 기반해서 힘을 연합하고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향한 관심을 공유하면서 봉사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생성하는 것이다. 더 나

39) Corwin Smidt, *op. cit.*, 5.

40) Robert N. Bellah, “The Necessity of Opportunity and Community in a Good Society”, *International Sociology* 12-4(1997), 392.

41) Amitai Etzioni, “Creating Good Communities and Good Societies”, *Contemporary Sociology* 29-1(2000), 188.

아가 종교복지시민단체는 취약계층들 스스로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활의 힘을 키우면서 그들이 공유하는 목표나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사회적 자본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교 사회적 자본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들을 어느 정도 타개했는지, 아니면 타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우리 사회문제의 해결에서 아직 그 성과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종교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대면교류에 기반한 신뢰가 얼마나 사회적 신뢰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종교 역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종교시민단체의 복지활동이 바로 종교가 잃고 있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한다는 기대를 품게 한다. 가족의 윤리가 붕괴되고, 아동학대가 심각하며, 빈부의 불평등으로 여전히 끼니를 잇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이 시대에 ‘연꽃마을’의 효의 사회화 운동이나 ‘월드비전강원지부’의 아동권리보호와 사랑의 점심나누기 운동은 작은 시도이지만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이다. 종교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외부인들까지 모여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이 확장된다면 그 성과는 시민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종교복지시민단체의 특성을 비종교 일반복지시민단체와 비교하고, 여기서 드러난 종교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중심으로 종교복지의 의의와 시민사회에서의 기여를 고찰했다.

위에서 거론한 대로 시민사회에서의 종교의 기여에는 종교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자본주의의 지배력이 인간 간의 사회관계 전반으로 확장되어 가는 현상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자본주의 변호론의 새로운 변종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모든 다양한 사회관계를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로 귀착시키거나, 시민적 정치문화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적용하였던 학자들의 이론적 약점 때문에 개념상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⁴²⁾ 결국 문제는 모든 것을 인간 간의 관계 문제로 귀속시킨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서 나오거니와, 이런 점에서 종교복지가 그 개념을 정의 구현으로 확대한 것은 모든 사회적 문제가 인간관계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불평등에도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성을 드러낸다.

사회적 자본의 감소와 함께 종교 사회적 자본 역시 감소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가 사적 관심과 영성에 뿌리박혀 있어서 기껏해야 종교 사회적 자본은 다른 시민 조직들의 사회적 노력들에 대한 강한 원천이 될 뿐이라는 회의적인 관점이다. 심지어 종교공동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개인주의자로서 집회를 사회로부터의 단순한 피난처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⁴³⁾ 덧붙여 종교 사회적 자본의 시민 사회에 대한 기여가 부분적이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거니와, 인간관계에만 초점을 둔 종교 사회적 자본으로는 사회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회의와 비판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주로 종교 사회적 자본의 기반이 되는 신뢰와 사교성, 가까운 이웃, 사회봉사⁴⁴⁾와 같은 것으로는 이 사회와 민주주의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공동체에서의 그룹 활동이나 시민 참여가 실제로는 낙관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낭만화’되고 있는 데 대한 회의⁴⁵⁾와 결사체의 삶이 중요하더라도 난마처럼 얽힌 사회

42) 김상준, 앞의 글, 88-89.

43) John A. Coleman, S.J., "Religious Social Capital: Its Nature, Social Location, and Limits," Corwin Smidt (ed.), *Religion as Social Capital: Producing the Common Good*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03), 45-46.

44) 테다 스카치폴, 『민주주의의 쇠퇴: 미국 시민생활의 변모』, 강승훈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258, 268.

45) Theda Skocpol & Morris P. Fiorina, "Making Sense of the Civic Engagement Debate," Theda Skocpol & Morris P. Fiorina (eds.), *Civic*

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을 푸는 데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⁴⁶⁾ 모두 종교 사회적 자본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단 종교복지와 종교 사회적 자본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결사체나 혹은 작은 공동체가 면대면 상호작용에 의해 강력한 신뢰와 협동을 가져오고, 사회적 규범이 사람 사이의 친소관계와 유사 집단의 압력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는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⁴⁷⁾ 위에서 논한 대로 종교시민단체들은 교과와 무관하게 동일 종교기관이나 단체, 신자들만이 아니라 특히 외부기관과 비신자들로부터 역시 긴밀한 협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종교복지시민단체의 활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을 위한 시민적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면서, 시민사회가 단순히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구분되는 영역이 아니라 신뢰와 협동을 창출하는 '의미'의 체계로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종교와 비종교, 종교 교과 간의 화합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건강한 시민사회의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종교사회복지의 의의는 좀 더 체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종교복지시민단체의 복지활동은 구제의 대상으로서 취약계층의 돌봄에 힘쓰는 종교기관의 복지활동과 다르고, 취약계층의 급박한 현실문제들은 일단 접어두고 권리 보호나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일반복지시민단체와도 다르다는 점이다. 비록 종교복지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들의 긴급한 당면문제에 집중하느라 범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오히려 종교복지는 그러한 점에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서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종교복지시민단체의 수적 증가와 그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14.

46) 마이클 에드워즈, 『시민사회: 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 서유경 옮김 (서울: 동아시아, 2005), 55.

47) 같은 책, 95-96.

들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바, 사회적 신뢰와 종교적 신뢰 간의 차이, 네트워크의 존재방식 등을 포함한 단체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밀한 질적 고찰은 후고로 미룬다.

주제어: 종교복지시민단체, 시민사회, 종교사회복지, 종교 사회적 자본, 종교공동체

원고접수일: 2016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6일

참고문헌

- 가나안쉼터 홈페이지(<http://www.canaanhomeless.or.kr/>)
- 고병철.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종교문화비평』 19(2011): 244-284.
- 국민일보. 2012. 7. 22.
- 권경임. 「시민사회에 있어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2003.
- 김기식.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01): 169-179.
- 김상준. 「부르디외, 콜만, 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38(6) (2004): 63-95.
- 노길명. 「종교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종교와 사회』1(2010): 191-215.
- 높은뜻푸른교회 홈페이지(<http://www.igodswill.com/>)
- 밀러, 도날드·테스나오 야마모리. 『왜 섬기는 교회에 세계가 열광하는가?: 기독교적 사회참여의 새로운 모델, 성령운동』. 김성건·정종현 옮김.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 박영신. 「종교, 삶의 문화, 그리고 시민사회」. 박영신·이승훈 공저.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 사사로운 개인에서 공공의 시민으로』. 서울: 북코리아, 2010.
- 박정수. 「실직노숙인 재활 그룹홈 '한울타리 사람들'과 홈리스 주거지원」. 『도시와 빈곤』66(2004): 116-124.
- 스카치폴, 테다. 『민주주의의 쇠퇴: 미국 시민생활의 변모』. 강승훈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 시민운동정보센터 편. 『2012 한국민간단체총람』. 서울: 시민운동정보센터, 2012.
- 심대섭. 「시민사회에 있어서 원불교 사회복지의 역할: 한국의 시민사회

- 와 원불교의 사회봉사」.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2003.
- 에드워즈, 마이클. 『시민사회: 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 서유경 옮김. 서울: 동아시아, 2005.
- 영성과 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http://www.kassw.net/>)
- 원주제일감리교회 홈페이지(<http://www.wjmc.or.kr/>)
- 월드비전강원지부 홈페이지
(<http://worldvisiongw.or.kr/home/main/index.php>)
- 유승무. 「시민사회의 등장과 새로운 종교사회복지모델의 모색」.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2003.
- 이태수. 「시민사회 내에서의 가톨릭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2003.
- 전명수. 「종교사회복지의 이념과 실천 방식에 대한 재성찰: 종교사회복지의 이론화작업의 일환으로」. 『담론201』18(2) (2015): 65-92.
- 평화신문. 2015. 4. 12.
- Bellah, Robert N. "The Necessity of Opportunity and Community in a Good Society." *International Sociology* 12(4) (1997): 387-393.
- Bellah, Robert N. et al. *The Good Society*. New York: Alfred A. Knopf, 1991.
- Coleman, James S.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Coleman, John A., S.J. "Religious Social Capital: Its Nature, Social Location, and Limits." Corwin Smidt (ed.), *Religion as Social Capital: Producing the Common Good* (Waco,

-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03): 33-47.
- Etzioni, Amitai. "Creating Good Communities and Good Societies." *Contemporary Sociology* 29(1) (2000): 188-195.
- Foley, M. W. & B. Edwards. "Beyond Tocqueville: Civil Society and Social Capital in Comparative Perspectiv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 (1998): 5-20.
- Fukuyama, F.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 Lin, Na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Portes, A.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998): 1-24.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2000.
- Putnam, Robert D., Robert Leonardi, Raffaella Y.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Schuller, Tom et al. "Social Capital: A Review and Critique." Stephen Baron et al. *Social Capital: Critical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38.
- Skocpol, Theda & Morris P. Fiorina. "Making Sense of the Civic Engagement Debate." Theda Skocpol & Morris P. Fiorina (eds.),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1-23.
- Smidt, Corwin. "Introduction." Corwin Smidt (ed.), *Religion as Social Capital: Producing the Common Good*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03): 1-17.
- Wuthnow, Robert. *Acts of Compassion: Caring for Others and*

Helping Ourselv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Abstract

Social Welfare Activities of Religion-Based Civic Associations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 A Religious Social Capital Approach

Chun, Myung-Soo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religion-based welfare civic associations(RWCA) an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with a primary focus on social capital, and thereby re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religious social welfare(RSW). It seems that there is general agreement on views that RSW requires an almost symbiotic relationship with civil society. RWCA, as its representative example, shows the characteristics prior to social service, different from general civil associations. The major difference, however, lies in religious social capital. Religion is generally regarded to serve as the key producer of social capital; it has a distinctive capacity to nourish social capital based upon trust among members sharing religious faith and close network of religious organizations. A meaningful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is civic association forging it through helping socialization of individuals, and so RWCA contributes to social capital formation by leading social service and civic engagement of people or organizations—be they religious or secular—beside its own welfare activities. Furthermore RWCA becomes vehicles for producing social capital

by fostering self-help force of the disadvantaged who build community themselves. In this respect RSW means welfare activities mainly depending upon social capital achieved by social service and civic engagement of religious communities and other people or organizations, regardless of their religion, trusting and cooperating them. Above all it secures its own proper discipline by conducting holistic ministry beyond charitable giving and physical care. In addition it does not seem to be appropriate to extend the RSW to the grand discourse of 'realization of justice' in that RWCA join only civic movements related closely with its own aims. It is true that there appears recently the negative recognition of social capital only existing on the basis of interpersonal relations, but if, nevertheless, religious social capital can be expanded from religious community to outside world, its social achievement might surely be expected.

Key words: religion-based welfare civic association, civil society, religious social welfare, religious social capital, religious community